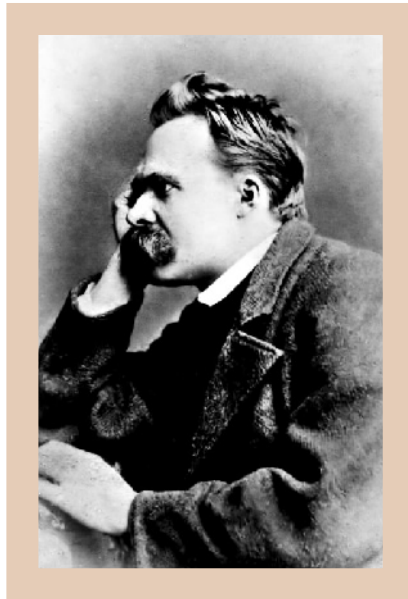


# 『도덕의 계보학』은 전통도덕에 대해서 니체가 던진 폭탄선언을 담은 책이다

박찬국 (철학과 교수)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와 같은 사람을 평가하는 데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가치척도가 있을 수 있다. 그리스도교와 같은 종교의 가치척도에서 볼 때, 그는 전쟁을 통하여 명성을 이룩한 자이며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터에서 살육하고, 전쟁물자의 조달을 위하여 노예들을 혹사한 자로서 '선량한 인간' 이라기보다는 '악인' 으로 취급되기가 쉬울 것이다. 그런데 니체에 따르면 이러한 가치척도는 근대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에 계승되고 있는 바, 예컨대 그것들의 관점에서 보아도 카이사르는 고대 로마의 노예제사회를 유지하려 했던 악한으로밖에 취급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니체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그리스도교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았다.



즉 위인으로 간주할 때 전제하고 있는 가치척도다. 이러한 가치척도에서 볼 경우, 카이사르는 지적 탁월함과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엄청난 포용력의 소유자로서 칭송받아야 될 인물이다. 이에 반해 카이사르를 뒤따르던 부하들과 카이사르의 전쟁을 음모로 뒷받침한 노예들은 카이사르보다 열등한 인간으로서 카이사르의 지배와 통제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카이사르와 같은 사람을 위대한 인간으로 간주하는 가치척도에 입각한 도덕을 니체는 주인도덕이라고 불렀다. 노예도덕에서는 '선' 과 '악' 이 사람들이나 사람들의 행위를 평가하는 가치기준이

되는 반면에, 주인도덕에서는 '탁월함' 과 '열등함' 이 가치기준이 된다.

이러한 그리스도교적 가치척도에 있어서는 '선' 과 '악' 이 가치평가의 기준이 되는데, 이 경우 선한 사람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며 악한 사람이란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교적 가치척도에 따를 경우, 선한 사람으로서 칭송을 받는 사람은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는 노예나 노동자가 된다. 니체는 이렇게 그리스도교적인 가치척도에 입각한 도덕을 노예도덕이라고 불렀다. 그러한 도덕은 노예들의 계급적인 이익을 위한 도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카이사르를 평가하는 또 하나의 가치척도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보통 카이사르를 '위대한 인간',

니체는 노예도덕이 득세하는 곳에서는 탁월한 자들에 대한 원함과 시기가 지배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간들의 전체적인 수준이 하향 평준화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니체에 따르면 그리스도교의 대두 이래 서양의 역사는 노예도덕이 갈수록 그 지배권을 강화해 왔으며 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갈수록 범용하게 되고 비천하게 되었다. 따라서 니체는 이러한 노예도덕에 대해서 주인도덕의 회복을 주창한다.

나는 이상에서 니체의 명저 『도덕의 계보학』에 실려 있는 첫 번째 논문의 핵심을 소개해 보았다. 이러한 소개로부터 추측할 수 있겠지만, 『도덕의 계보학』은 전통도덕에 대해서 니체가 던진 폭탄선언을 담은 책이다. 이 책에서

이번 호 고전 산책에서는 두 권의 책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박찬국 교수님께서서는 기존 도덕에 폭탄선언을 한 『도덕의 계보학』에 대한 글을 보내주셨고, 정소연 교수님께서서는 『구운몽』을 통해 인간의 삶이 지닌 욕망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호 열린지성은 이 두 권의 책으로 우리들의 삶이 보다 더 풍성해지기를 희망합니다.



니체는 전통적인 도덕규범과 이것과 연관된 죄와 양심의 가책 그리고 금욕주의적인 이상이라는 현상들의 기원을 밝히는 방식으로 그것들의 기만성과 병적인 성격을 여실하게 폭로하고 있다. 니체는 전통도덕의 기원을 밝히는 책이라는 의미에서 이 책의 제목을 『도덕의 계보학』이라고 붙였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당연하게만 생각되는 이러한 현상들을 니체는 결코 당연한 현상으로 보지 않았다. 니체는 선악 관념의 기원을 신이나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양심에서 찾지 않았다. 그 이전에 그는 우리의 선악 관념을 당연하고 무조건적으로 올바르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러한 관념의 이면에는 특정한 세력이 그러한 관념을 이용하여 권력을 장악하려는 음험한 동기가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의심했고, 그러한 동기야말로 사실은 선악 관념의 기원이라고 보았다. 이와 함께 그는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한다는 생각도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이 책은 세 개의 논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과 악, 고귀함과 열등함”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 논문은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선’과 ‘악’이라는 도덕관념의 기원을 파헤치고 있다. “죄, 양심의 가책 그리고 그와 유사한 것들”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논문은 죄와 양심의 가책의 기원을, 세 번째 논문에는 “금욕주의적 이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제목이 붙어있고 금욕주의적인 이상의 기원을 파헤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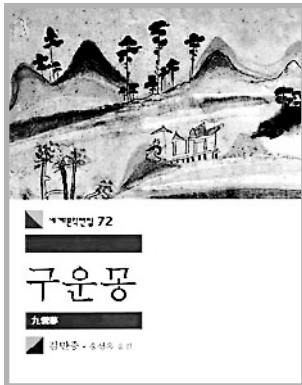
아울러 니체는 유럽의 역사를 금욕주의가 지배해 온 역사로 보았다. 금욕주의란 우리의 자연스런 욕망이나 본능을 약한 것으로 보면서 근절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금욕주의는 우리 인간은 지상의 삶에서 기쁨보다는 천상에서의 영원한 복락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욕망과 본능을 억누르고 오직 천상의 가르침에만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니체는 이러한 금욕주의가 플라톤의 형이상학과 그리스도교 이래 거의 2500년의 서양의 역사를 지배했다고 보고 있고 당시의 유럽도 이러한 금욕주의의 지배 아래 있다고 보았다. 니체는 이러한 금욕주의를 일종의 정신병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당시의 유럽을 거대한 정신 병원이라고 불렀다. 금욕주의라는 정신병의 기원에 대한 탐구 역시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도움을 주며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정하는 것을 선하다고 본다. 이에 반해 남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고 남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은 악하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선악에 대한 이러한 관념과 죄와 양심의 가책이라는 현상은 너무나 당연하게만 느껴진다. 따라서 우리는 보통 이러한 관념이나 현상들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따져 볼 생각도 하지 않는다. 혹시 그것들의 기원을 묻더라도 그리스도교와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은 그러한 선악 관념이나 양심이 하느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은 우리에게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고 이러한 양심으로부터 선악 관념과 양심의 가책이 비롯된다고 볼 것이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떠한 행위가 옳은 행위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은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이다. 니체의 말이 전적으로 옳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욕망하는 삶과 성찰하는 삶

정소연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인간은 누구나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욕망을 꿈꾼다. 성장하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자신의 꿈을 접었을 때, 훗날 자신이 꿈꾸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보거나 가끔 매스컴을 통해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재물로 호사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을 접할 때 자신이 사는 삶의 자리를 떠나 타인의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누구나 해보았을 것이다. 그러면 유명인이 되고 다른 사람의 동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가? 막연히 짐작하는 것처럼 행복하고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을까? 욕망하는 것을 가지고 이루는 것을 부추기는 세상에서 <구운몽(九雲夢)>은 이에 대한 나름의 답을 성찰적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구운몽>은 한국인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고전이다. 중·고등학교 때 조선 중기의 대표적 양반 소설이며 몽자류(夢字類) 소설의 효시, 그리고 한문본 외에도 국문본이 존재하는 역사적 의미 등으로 구운몽을 접한 경험이 대부분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은 17세기 조선에 머무르지 않고 일본과 중국으로 수출되어 각각 <몽환(夢幻)>과 <구운기(九雲記)>로 개작되었고, 20세기 최인훈의 <구운몽>과 한승원의 <꿈>으로도 재창작되었다. 시대와 공간을 넘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이 작품이 지금 여기의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무엇인가?

서포(西浦) 김만중(金萬重)이 <구운몽>을 창작하게 된 배경에는 노모(老母)를 위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김만중의 어머니는 청춘과부로서 가난한 살림살이를 이끌며 나가면서도 오직 두 자식에 마음을 붙여 정성껏 길러 여생을 즐기려 했는데, 그 장자 김만기를 잃어버리고, 또 김만중조차 유배지로 자주 귀향가게 되어 허무한 삶을 한탄하며 살았다.

김만중은 이같은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는 글을 쓰고 싶었을 것이고, 그러한 효심(孝心)은 사친시(思親詩)나 <정경부인 윤씨행장>, 그리고 소설 <구운몽>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설을 통해 어머니께 지금 현실의 고통은 한 순간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알려 주고 싶었고, 한편으로 삶의 유한성과 허망함을 극복하는 영생의 길을 갈망하여 지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작품의 제목같이 욕망하는 대로 살고 그것이 이뤄지는 삶은 사라지는 구름같고 깨면 그만인 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인간의 삶이 무상하기만 한 것이라면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러한 삶의 의미에 대해 김만중은 인생의 덧없음을 설파하면서 동시에 성찰하는 삶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히 욕망을 충족하는 삶에서 벗어나 현실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고 삶의 근본적인 의미를 찾을 것을 권고한다. 그러므로 소비가 미덕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구운몽>의 주인공 ‘양소유’의 삶처럼 비교와 허영에 눈과 귀가 멀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인간의 욕망이 자신의 도덕성과 이성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도 파괴하지 않는지를.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오래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덮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가계가 늘어가고 있다. 미국의 금융시장이 신뢰의 위기로 심한 독감을 앓고 이것이 실물 경기로 번지면서 세계 곳곳에는 몸살로 드러나는 나라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욕망을 대표하는 자본주의 상징인 미국 월가에서 시작된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위기에서 단기간에 벗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서 한 동안은 이 땅에 자본주의가 들어온 이래 흔히 겪어본 적이 없는 경기침체를 겪게 될지도 모른다. 10여 년전 이 땅에 외환위기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삶을 비판해 자살하거나 소망을 잃고 거리의 부랑자로 내몰렸던 그 때가 다시 오지 않을지 염려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그토록 견고하던 자본주의 탑이 이렇게 쉽게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던 만큼 회복에 대해서도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네 삶의 목적이 너무 물질적인 데 있었고 그 세상의 부귀와 사치의 끝을 너무 오래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맹신한 결과 그것이 무너지는 것도 알지 못할 만큼. 이제는 주인공 ‘소유’의 삶에서 깨어나 또 다른 주인공 ‘성진’의 삶으로 돌아와야 할 때인 것이다.

인간은 바라는 소망으로 인해 의미 있고 생기 있는 삶을 살게 된다. 만일 삶에 절망하고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이미 살아 있는 자의 삶이 아닐 것이다. 그런 만큼 내일에 대한 기대나 희망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것이지만 그 소망하는 바가 쉽게 사라져버릴 덧없는 것이라면 그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가? 욕망하는 것을 다 얻으려는 것은 이내 불행으로 접어드는 지름길을 걷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것을 이룬 뒤 정상에서 깊은 고독을 맛보며 오래지 않아 그 자리는 다른 누군가의 것이 될 것이므로.

역사상 최고의 지혜를 가졌고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실존인물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은 그런 인생의 의미를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말이다. 김만중과 솔로몬이 시대와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에게 외치는 공통된 목소리이다.